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마태복음 28:19-20)

영국 브록워스의 쿠퍼스 힐에서 매해 개최되는 행사 중에 재미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ppt2)***바로 '치즈 롤링 앤드 웨이크(Cheese-Rolling and wake)'라는 행사인데요. 말 그대로 굴러가는 치즈를 잡는 대회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언덕 위에서 4kg의 동그란 치즈를 굴려 내립니다. 그러면 수백명의 참가자들이 180m 언덕 아래로 몸을 던져 이 치즈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달려갑니다. 치즈는 순간적으로 110km이상의 빠른 속도로 굴러간다고 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가파른 언덕에서 치즈를 따라 함께 넘어지고, 구르기도 합니다.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은 그 치즈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어 보이죠? 어느덧 이 대회는 정말 유명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회가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라는 것인데요. 기록된 역사로만 최소 200년이 넘은 대회라고 하네요. 치즈를 향해 달리며 그 기쁨과 열정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 한 대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앱이 무엇이 있을까요? 메신저 앱과 함께, 이제는 필수앱의 위치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배달 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배달 자주 시켜 드시죠? 이 배달 앱 중 가장 유명한 앱인 '배달의 민족' 앱이 10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광고 카피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광고 카피 기억하시나요?

(ppt3)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정말 재미있는 카피였죠. 평소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배달민족'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ppt4)***그 뒤로 '00 민족이었어'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배달의 민족' 앱은 자연스럽게 전국민의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전통과 역사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 민족은 어느덧 오천년 역사를 지나오며, 여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습

니다. *(ppt5)*한글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ppt6)*오랜 외세의 침략 속에 나라를 지켜냈던 역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ppt6)*아름다운 건축들과 문화재가 떠오를 수도 있죠. (ppt7)스포츠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한류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두유 노 클럽'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역사. 어느덧 1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자리 잡은 우리의 역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ppt9)*한국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느덧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는 14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ppt10)*1885년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감리교회는 이 땅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가 한국에 뿌리 내렸던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ppt11)(1) 먼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1887년 서울 정동에 세운 '정동제일교회', 인천의 '내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 모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 기도처와 예배 모임이 퍼져 나갔고, 우리 나라 각 지역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이 땅은 세계 열강들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 속에 놓여 있었고, 사회는 신분제도와 빈부의 격차가 존재했고, 미신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주며,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일깨워주는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ppt12)*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성별의 차별, 빈부의 격차가 극복되었습니다. 미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조선 사회가 갖고 있던 봉건적인 모습이 탈피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 일제의 폭압이 심해졌을 당시에도,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민족의 삶의 한 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ppt13)(2) 두 번째,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는 시작부터 의료선교사들의 사역과 함께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는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시병원을 세워 가난한 백성들을 구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더욱 열악했던 여성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ppt14)*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는 함께 평양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에 헌신했지만,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는 전염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는 미국에서 모금운동을 하여 다시 아들과 평양으로 돌아와 '기홀병원'을 시작으로 많은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세우기 전에는 당연히 죽는 병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조금만 치료 받아도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서 누워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출산하다가 죽는 산모도 많았습니다.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을 때를 놓치는 여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수많은 이들을 살렸습니다. 마치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들은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ppt15)(3) 세 번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감리교의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에도 매진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젊은 이들에게 학문과 신앙을 가르쳐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배우지 못하고, 여자라서 배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배움을 허락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없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운 학교는 그런 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차별없이 가르쳤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ppt16)*덕분에 교회가 세운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이 사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몽과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만세 운동은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배재학당에서는 독립협회가 태동했습니다. *(ppt17)*배재학당에서 언어를 가르쳤던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의 아버지 주시경 선생을 가르쳤고, 이후 한국어 연구와 보급을 위해 애썼을

뿐만 아니라, 고종황제의 비밀 특사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감리교회는 이 사회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ppt1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 28:19)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회가 앞서 말한 복음의 역사를 걸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고쳐주며 보듬어 주어 제자로 삼았습니다.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세례를 주어 예배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삶의 목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전해진지, 어느덧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ppt18-2)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이 전통과 역사를 잘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있어지는 방법을 찾고 싶어하고, 의지할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픈 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많은 청년들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 가장 풍요로운 이 때에, 가장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때에, 아픈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더 경쟁에 몰두하고, 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럴 수록 더욱 아파서, 힘들어서 좌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배우려고 합니다.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이는 크리스천 청년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을까요?

14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안녕을 포기한 수많은 이들의 헌신 속에서 예배와 치유와 배움이 아름답게 열매맺었습니다.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돈의 많고 적음으로 배제되었던 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치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고, 함께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롱을 받기도 했고,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던 이들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인생들은 모여 열매를 맺었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ppt19)*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염도는 약 3%라고 하죠. 그 3%의 소금 때문에 우리는 바닷물이 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맛을 간직했던 한국감리교회는 작고 약했지만 이 사회를 썩지 않게 했습니다. 확실한 맛을 냈습니다.

*(ppt20)*오늘 날 14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크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썩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확실한 교회의 맛을 내고 있을까요? 러가는 치즈를 잡는 대회도, 즐겁고 가치있다 여겨지니까 200년이 지나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은 이에 비할 수 없이 강하고 가치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ppt21)"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마 28:20)

그렇습니다. 140년 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한국감리교회와 함께하셨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도 함께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주님, 제가 교회의 모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도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시는 주님과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ppt22)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은혜,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헌신, 우리가 그 은혜의 빚 위에 서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간직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시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